전북 빈 상가 · 임대료 전국 최고

1분기 중대형 공실률 17.5%로 전국 최고··· 임대료는 1㎡당 2만4,300원으로 도 단위 2위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 의 빈 상가 건물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대료는 상승하면서 임대 상 인의 한숨 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우선 도내 중대형 상가 1분기 공실률은 17.5%로 전국 평 균 10.6%보다 월등히 높으면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 역시 8.3%로 전국 평균인 5.3%보다 3%포인트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전 10.7%에 이은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높은 이유는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며 상가 건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불안에 따른 사업투자 욕구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집합 상가는 영세 개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도내 집합상가 임대료는 1㎡당 2만 4,300원으로 경기 3만300원에 이어 9개도 단위에서는 전국 2번째로 높았다.

투자수익률을 보면 중대형·소규모·집합상가 전 분이에서 전국 평균 지보다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상권 노후화 등의 영향으로 수 익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주한지 전통계승 포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3일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 한지장, 교수, 연구원 등 한지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주한지 전통계승 및 세계화'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의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1.44%로 전국 평균 1.62%보다 낮아 전국 16개 시 도 중 7번째였으며 소규모 상가는 1.30%로 전국평균 1.52%보다 0.22%포인트, 집합상가의 경우는 1.68%로 전국 1.96%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지는 "전북의 집합 상가 임대료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중대형 상가 선정기준은 '건축연면적이 50% 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3층 이상인 빌딩'으로 전북의 경우 121동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됐다. 소규모 상가는 건축연면적이 50% 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2층이하 빌딩 으로 도내 146개동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집합상가는 건축연면적이 50% 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빌딩 으로 900동을 조사했다.

/고민형 기자

황금연휴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무료주차 2시간 허용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5~8일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영천시장, 부산 자갈 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허용하다.

3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임시 주 차는 설명절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시장과 구간을 중심으로 허용된다. 교 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 행 정 자 치 부 (www.moi.go.kr), 경 찰 청 (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 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1월 실시한 주차허용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명절에 전통시장 주 주차를 허용 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객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했다./박용주 기자

전주자원순환 특화단지 입주업체 선정 완료

㈜동우TMC 등 6개 업체 연말부터 본격적인 공장 가동 예상

전주시 상림동에 조성된 전주자 원순환 특화단지(80,009㎡) 내 입주 업체 선정이 모두 완료됐다.

전주시는 ㈜동우TMC 등 6개 업체가 전주지원순화특화단지에 입주키로 하면서 입주업체 모집이 모두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에는 산업용지에 (유)엘림이엔 등 4개업 체(21,602㎡)가 가동 또는 건축공사 중에 있다.

이번에 추가로 입주 확정된 6개 업체(26,640㎡)는 바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장을 신축해 올 연말부 터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간 다.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는 시가 지 난 2005년 환경부 국가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됨에 따라 버려지 는 폐기물을 단순매립이나 소각하 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 는 지역단위 지원순환망을 구축하 는 폐자원 순환 시범도시사업으로 추지되다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 전량을 처리하기 위해 최신 고도처리공법(한트공법)을 적용한 1일 230톤 처리용량의 폐수종말처 리시설을 설치해 완벽 처리·운영 된다.

우종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영세한 지역 재활용산업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폐자원 및 재활용제품 원료의 생산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소각장·매립장 및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등 지원순환망이 구축돼 불류비용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김영재 기계



군산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선정

교육부 2018년까지 3년간 150억 사업예산 지원

군산대학교가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대형 공모 사업인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에서 지역중심국립대학으로는 전국 유일 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PRIME사업은 대학의 양적 조정(인력 미스매치 해소)과 질적 개선(학생의 진로역량강화)을 통해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선도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2012억원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산대학 교는 교육부로부터 2016년부터 2018 년까지 3년간 총 150억원의 사업예 산을 지원받는다.

대상 대학 선정은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대면평가 및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고 대형 27 개교, 소형 48개교 등 전체 75개 신 청 대학 중 대형 9개, 소형 10개 등 19개 대학만을 선정했다.

이 기운데 국립대학교는 군산대학교와 함께 소형 유형에 선정된 경북대 등 2개교 뿐이다.

군산대학교가 선정된 분이는 창조 기반선도대학(소형) 유형으로 주요 중점 분이는 해양, 운송, 융합기술창 업, 공간디자인 등 4개 분이이다.

이에 따라 군산대학교는 '창의적 융합형・실무형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융합기술창업학과(신설)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신설) ▲건축 해양건설융합공학부(증원) ▲기계융 합시스템공학부(증원) ▲해양산업・ 운송과학기술학부(신설) 등 6개 학 과를 신설 및 개편하고, 미래발전 및 기술전략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창의 적 융합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전주 비전대 '일·학습 병행훈련센터' 준공

전주비전대학교가 일과 학습을 병 행할 수 있는 센터를 열었다.

행할 수 있는 센터를 열었다. 3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이날 '일 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준공

식을 학교에서 가졌다. 이 센터는 자체 훈련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대학과 기관의 전문 인력으로부터 산업현장 기관의

지무를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다. 또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학 통 합교육인 유니테크 사업 참여 학생 들의 현장실무 실습장으로도 활용된 다. 훈련생들은 기관실과 전기실·판금 실·도장실 등 산업현장과 동일한 환경으로 구축된 이 센터에서 자동 차와 기계관련 실무를 익히는 체계 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에 준공된 듀얼공동훈련센터는 지상 1층 규모로 9개의 전문 실습실 을 갖추고 있다.

비전대 관계자는 "듀얼공동훈련센 터가 완공된 만큼 고교·전문대학·기 업이 연계된 통합교육과정을 본격적 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